

번호: PO-MA-011					
제 목	적정 의료자원 할당에 관한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태도 Attitude of Providers of Health Care Services on Rationing the Health Care Resources				
저 자 및 소 속	이상이1), 서남규2), 이용갑2), 박종연2), 최숙자2) 1)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Sang-Yi Lee1), Nam-Kyu Suh2), Yong-Gab Lee2), Chong-Yon Park2), Sook-Ja Choi2) 1) Dep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Medical College, Cheju National Univ., 2) Health Insurance Research Center, NHIC				
분 야	의료관리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보장]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목적: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보건의료부문의 재정확충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다. 여기서 두 번째 방법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의 우선순위는 각 나라마다 사회문화적 요인들로 인해 차이를 보이며, 국가 내부에서도 계층이나 집단에 따라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자원의 할당에 대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p> <p>방법: 본 연구를 위해 2005년 7-8월 사이에 전국에서 활동하는 의사 등 5개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직종별로 지역과 근무기관 유형(병원, 의원)에 따라 설정하였는데, 최종응답자는 의사 884명, 치과의사 158명, 한의사 141명, 간호사 165명, 약사 158명 등 총 1,506명이었다.</p> <p>결과: 우선 의료분야의 새로운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예산부문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재원확충이었다(30.7%).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을 건강에 대한 평등주의적 입장, 위급성, 최대화, 삶의 기회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답하도록 하였는데, '치료를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부터 보장'이라는 최대화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43.4%), 그 다음으로 위급성(28.1%), 평등주의적 입장(16.3%), 삶의 기회(2.3%)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의료자원을 할당하는데 있어서 비용-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누가 의료자원 할당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사(40.3%), 일반국민(33.0%), 정부(16.5%)의 순으로 나타났다.</p> <p>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일반국민들에 대한 조사와 보험자 및 정부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그룹의 의견과 통합하여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의료자원 할당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종합적 연계분석을 통해 각 직종 및 진료과목(의사의 경우)에 따른 차이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p>					